



회/원/소/개

최영희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I. 저자 소개

최영희 교수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AI-서사 융합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AI-Narrative Creative Lab)를 운영하고 있다. AI-서사 융합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에서는 시나리오(서사, 스토리)에 대한 기획력과 창작 능력을 중심으로 삼아 공학·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 및 학생과의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ICT융합공학과 박구만 교수와 결성한 ST융합연구팀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문학작품 각색, 광고, 뮤직비디오, 숏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였고,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향후 실사 영화와 AI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영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장편영화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영화제 출품을 앞두고 있다.

연구 성과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영화와 TV드라마 비교 연구, 동서양 고전 및 문화원형의 IP 개발 및 사례 연구,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화 시나리오 창작 실험 및 기술적 구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인문학, 방송공학, 문화콘텐츠 관련 저널과 학술대회에 출판,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화 시나리오 자동 집필을 위한 기술 개발과 특허를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동양고전을 발굴 및 번역하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풀이하는 글쓰기 작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책을 출간하고 있다.

II. 연구 분야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화 시나리오 창작 실험 연구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영화 시나리오 창작 과정을 단축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다양한 영화 장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모든 영화는 반드시 프리프로덕션-프로덕션-포스트프로덕션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만 완성된다. 영화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절차가 수반되는데 그 중심에 시나리오가 놓인다. 본 연구 방향은 여러 생성형 AI 도구들을 활용하여 시청각적, 형식적 특성이 명확한 영화 장르 시나리오를



Seoul in 2054



Metarium



The pure human protagonist



The cyborg that combines humans and machines



The Antagonist



The leader of the resistance



The instructor of Purity Group



The new member of Purity Group

<그림 1>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만든 SF 사이버펑크 캐릭터와 영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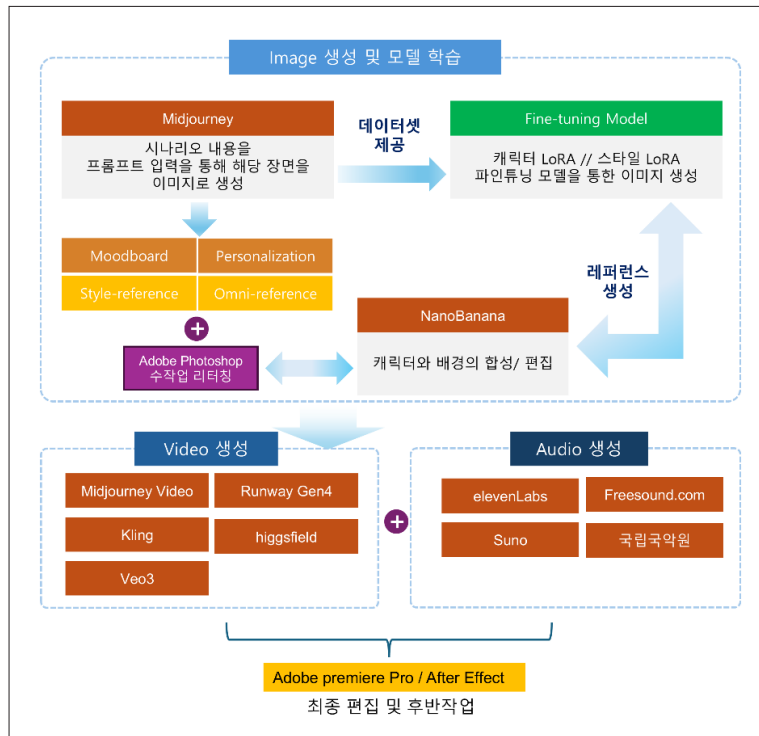
창작하고 그 결과물이 해당 장르의 보편적인 특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한 다양한 AI 도구들을 사용하여 AI가 창작한 최종 시나리오의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을 영상으로 구현해 봄으로써 역시 해당 장르의 영화적 특성과의 긴밀 정도와 완성도를 점검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생성형 AI 도구가 영화 시나리오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영화 제작 공정 과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2. 생성형 AI 기반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 연구

전통적인 영상 제작 방식은 높은 비용과 인력 의존도로 인해 독립 창작자와 소규모 제작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은 영화 제작의 모든 공정에 걸쳐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나, 기존 상용 SaaS 기반 도구는 단일 이미지의 품질 대비 다중 시점에서의 인물 및 객체 일관성 유지에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맹점을

Scene	Proposed(Ours)	Baseline(flux_dev)
cave		
classroom		
forest		
palace		
street		

<그림 2> 테스트한 한국형 애니메이션의 데이터 이미지



<그림 3>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전체 파이프라인

극복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을 제안하고, 여러 장르의 영상을 제작해 봄으로써 그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다양한 앵글 및 시점 특성, 시각적 완성도, 캐릭터·배경 일관성, 미학적 표현력, 제작 효율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의 실질적 대안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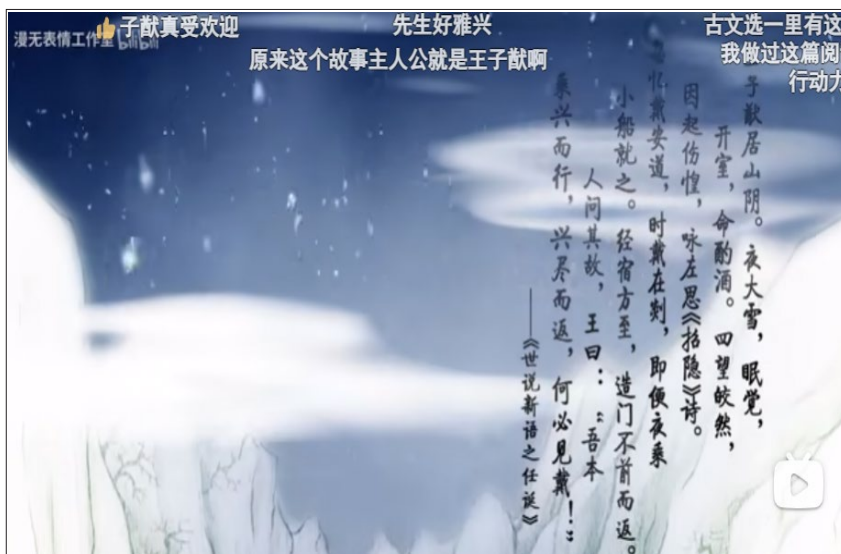
3. 동서양 고전 및 문화원형의 IP 개발 및 사례 연구

고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보편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인류문화의 중요한 자산이다. 한국에서는 미디어 컨버전스 환경이 확립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고전을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다. ‘문화원형’은 역사적 특수성과 초월적인 보편성을 가진 보편 가치 및 활용 가치가 있는 문화 형태를 가리킨다. 문화원형의 발굴 및 활용은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산업적 효용 가치의 개발과 콘텐츠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본 연구 방향은 동아시아에서 발굴된 문화원형이 대중의 문화적 성향과 결합해 어떤 방식으로 IP를 획득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조신설화나 남가지몽(南柯之夢)에서 드러나는 ‘꿈 모티프’가 동아시아 연극, 영화, TV드라마 등에 어떻게 담기고 있는지, 민담을 토대로 한 ‘백사(白蛇)’ 이야기가 1950~60년대 한국·일본·홍콩에서 동시에 영화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도깨비와 저승사자 캐릭터가 동서양 문화콘텐츠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동아시아에 광포해 있는 ‘홍수남매혼’ 설화가 한국의 TV드라마와 중국의 SF 영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중국의 무술 중 하나인 ‘영춘권’이 영화적 스토리텔링과 결합



<그림 4> 시청자가 '탄막(彈幕)'을 통해 직접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빌리빌리 플랫폼의 사례

하여 어떻게 현대 무용극으로 되살아나는지, 고전 일화집 『세설신어(世說新語)』가 어떻게 대중들의 욕망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재탄생하는지 등 동아시아 문화콘텐츠는 물론 대표적인 서구 작품을 연구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문화원형의 요소와 특징을 분석하면서 미래에도 유효할 새로운 스토리텔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 애니메이션 <세설신어> 시즌 1 제8화 영상 이미지. '눈 오는 밤에 왕회지가 대규를 찾아간(雪夜訪戴)' 일화를 다룬다.



4.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영화와 TV드라마 비교 연구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서구화와 근대화 경험을 공유하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공통 감각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이유로 동일한 소설 작품이 3국에서 모두 영화화된다는지, 3국 내에서 각국을 오가며 영화나 TV드라마가 리메이크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화권에서 리메이크된 문화콘텐츠를 비교 연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강조되거나 소거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끌어 낸다. 동아시아 대중영화의 장르 변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3국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리메이크와 장르 비교를 통해 문화 번역, 현지화, 재맥락화의 과정을 설명하며, 한 국가의 문제의식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조정·변형·재구성되는지에 주목한다. 나아가 장르영화와 TV드라마를 사회비판, 국가관, 가족관, 젠더의식, 공동체 윤리가 반영된 문화 텍스트로 해석하면서 3국 문화산업의 교류와 동아시아 영상문화의 상호 영향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동아시아 영화 및 TV드라마 연구에서 비단 개별 작품 분석을 넘어 비교문화적·횡단적 연구 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III. 연구 실적

- 방송공학회논문지, 한국사물인터넷학회논문지, 문화기술의 융합, 문화와융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인문콘텐츠, 영화연구, 영상문화, 아시아영화연구, 시민인문학, 어문논집,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소설논총, 중어중문학 등 국내 저널 논문 40편 이상 게재
- 韩中论坛, 中国世说学学会,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한국영화학회,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한국문화융합학회 등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 다수 발표
- 동아일보출판사, 문학동네, 안그라픽스, 책과이음, 문헌재, 동인출판사, 연극과인간, 월인출판사, 역락출판사 등에서 『소서』 『반경』 『지낭』 『장원』 『삼자경』 『소인경』 『교양글쓰기』 『한국공연예술의 새로운 미래』 『연극과 영화의 경계와 통합』 『택시운전사-천만 영화를 해부하다 평론 시리즈 3』 『여성, 영화의 중심에 서다』 『종로미각』 『극장사회』 등 다수의 저서를 단독 및 공동 출간

저 자 소 개



최영희

- 1999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 학사
- 2002년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 2012년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 2019년 ~ 2021년 :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초빙교수
- 2021년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 주관심분야 : 생성형 AI 영화 제작, 영화 시나리오, 동아시아 영화 및 TV 드라마, 미디어와 영상문화